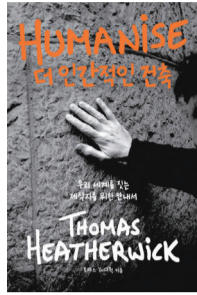


따분한 건축물 “NO”...인간적인 곳에서 살 권리 있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에서 경이롭게 일렁이며’ 물결치는 모습을 준다.

건축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더 인간적인 건축’은 흥미로운 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디자이너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토마스 헤더윅이 저자다. 건물에 대해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과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다. 특유의 통찰과 인문학을 버무린 책은 왜 건축물이 인간적이어야 하는지를 사유하게 한다.

까사 밀라는 평평한 2차원적인 현대식 건물과는 상반된 이미지를 발한다. 도로변에서 보면 건물아도 위로 굽어지는 모습이다. 저자는 ‘빛과 그림자가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다 단지 바라보기만 해도 마치 그 표면을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이와 달리 비인간적인 건물의 특징은 ‘따분하다’는 데 있다. 지난 100년 동안 각국 대도시에서 지어진 평범한 건축물은 “고문 수준으로 따분”한 느낌을 준다. 너무 밋밋한데다 직선적이다.

저자에 따르면 현대적인 건축물은 직사각형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계에 직면했다고 본다. 반복적인 수평은 딱딱하면서도 친근감을 주지 못한다. 또한 외부는 금속이나 유리면처럼 매끈한 재료로 덧씌워져 있다. 균일하고 매끄러운 평면은 인간의 감각이 달라볼을 가능성을 차단한다.

밋밋한 직사각형 배열은 단조로울 뿐 아니라 영감을 주지 못한다. 인간에게도 우호적이지 않다. 무



‘까사 밀라’는 스페인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에 있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건축한 고급 주택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클립아트 코리아>

엇보다 자연에 직선이나 직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말하는 ‘따분함의 산’은 르 코르뷔지에다. 르 코르뷔지에는 20세기 초 세계 도시들을 위협하고 병든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더니즘적 발상으로 건물을 비롯해 마을, 도시를 바꾸고자 했다. 중세 도시의 구불구불한 거리는 “위생 및 도덕적 건강”의 저하를 불러온다고 믿었다.

르 코르뷔지에는 건물과 장소는 직선과 직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7년에 걸쳐

‘직각의 시’ (The Poem of the Right Angle)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할 만큼 직선 신봉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곡선이 좀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저자는 “실로 합리적인 인간 세계는 효율이나 이윤, 무결한 기계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놀라운 다양한 유용성·역사성·특이성 속에 살고 있는 한 종(種)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반영하는 세계이다”며 “끝없는 흥미로움과 다양성의 세계이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면 인간화 원칙은 간단하

다. 건축물은 행인의 시선을 잡아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응성이 아닌 창의성이라는 의미다. 차를 타고 지나간다면 디테일은 놓칠 수 있어도 흥미로운 점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 건물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상징적인 외관을 갖춰야 할까. 저자는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배려와 복잡성,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필요로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알에이치코리아> 3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북어게인 | 캐스 셉스타인 외 지음, 이경식 옮김 | 시골집의 기적 | 오미숙 지음 | 서양음악사를 알고 싶은 그대에게 | 이인화 지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습관이 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길들여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움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대체로 습관화된다. 루틴이 있는데 그것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그것에서는 강력한 힘이 발휘된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것, 바뀐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것에 그만큼 흥미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탈습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 나왔다. 미국에서 가장 논문 인용횟수가 많은 캐스 셉스타인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와 탈리 샤프트 유니버시티칼리지리던턴과 MIT의 인지신경과학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북어게인: 변화를 만드는 힘’은 탈습관화의 위력을 주목한 책이다.

책은 또한 탈습관화 못지않게 중요한 습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습관화는 생존을 위해 인간이 적응하게 된 산물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저자들은 무엇보다 습관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만성화될 때 우리 삶에 적잖은 위협요인이 된다고 본다. 역설적으로 탈습관화 될 때 새로운 부분을 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야기한다. 높이뛰기 선수 팀 포스트베리의 무모한 도전을 비롯해 스웨덴의 우측통행으로 바뀐 날의 교훈 등이 그러한 사례다.

습관화를 극복하고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 본성과 행동 양식의 패턴을 인지하고 주변의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변화하고 싶다면 탈습관화하라.’ <한국경제신문> 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젠가는 시골집에 내려가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다. 어릴 적 살았던 고향집도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다고 이야기한다. 시골집의 매력은 무엇일까. 평온함과 아늑함이 느껴지는 시골집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공간이 주는 특별함까지 찾아볼 수 있다.



10년 전 ‘천만원으로 시골집 한 채 샅습니다’를 펴내면서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인테리어 디자이너 오미숙이 두 번째 책 ‘시골집의 기적’을 들고 돌아왔다.

어느 날 문득 시골집을 갖고 싶다는 열망으로 전국을 돌다가 서천의 작은 한옥을 찾아냈다. 그 집을 고친 경험을 모아 담은 첫 책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에 등극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 후 10년, 저자는 50대에 가까운 시골집을 고치면서 ‘시골집 전문 디자이너’로 등극했다. 이미 팔렸던 옛 집을 다시 구입하거나 형제 여럿이 모일 집을 고치기도 하고 꼭 살고 싶던 지리산 자락의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해 고치기도 했다. 그 중 열두채의 집을 골라 두 번째 책에 소개했다.

책은 ‘친환경 정신을 부여 고친 나의 두 번째 시골집’ 이야기로 시작한다. 2000만원에 구입한 첫 번째 시골집의 옆집 집을 한 채 더 샀고 태양열 발전기, 화덕 싱크대, 아궁이 노천탕, 빗물 저장 탱크까지 만들어 전기도 수도도 없이 살 수 있도록 집을 개조한 사례를 담았다. 전국 각지의 각기 다른 취향에 맞춰 색다른 디자인으로 고친 집의 사연을 듣고 싶다면 당장이라도 시골집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질지 모른다. <포북> 2만2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과학혁명이 시작되던 무렵, 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신에 대한 찬미와 더불어 ‘인간’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새롭게 융성하기 시작한 바로크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켰으며 서양 음악사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 이른다. 이런 음악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중세시대 음악의 단선율이나 그레고리오 성가의 유행을 단숨에 넘어선 이유는 무엇일까. 나아가 고전과 음악의 기초가 되는 조성음악의 역사와 낭만시대 음악가들의 탄생, 근현대 음악 흐름과 발전은 어떤 양상을 거쳤을까.

부산고등학교 교장이자 성악가로 미국, 일본 등에서 독창회, 오페라, 국제음악회에 출연해 온 이인화가 ‘서양음악사를 알고 싶은 그대에게’를 펴냈다. 저자는 ‘O.S.T. 코드: 히든 씬’, ‘O.S.T. 코드: 클래식’ 등 다양한 근작에서 클래식 음악을 쉽게 풀어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책은 익숙한 비발디나 헨델, 하이든, 바흐,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물론 근대음악의 전환기에 주목받은 예술가에 집중한다.

후기 낭만파 시대에 작곡가의 강한 개성과 민족주의적 색채, 순간의 인상 등을 표현하기 위해 불협화음을 사용하면서 조성음악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있던 아놀드 쇤베르크와 동시기 음악가를 조명하면서 당대에 확립된 12음 기법, 근현대 작곡가로 이어진 음악사적 흐름을 짚어본다.

재즈를 예술음악의 경지로 끌어올린 거쉬윈이나 현대 음악의 다양한 사조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망한다. 낭만과 근대 사조를 거쳐 현대음악이 고유의 영역을 구축한 과정을 들여다본다. <초분책방> 1만75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